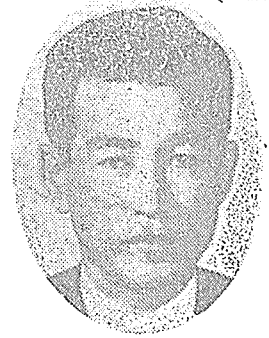


아메리카 圖書館의 周邊 (5)

金 世 翹



노오드 캐롤라이나 대학

3월 7일 일요일 아침 함박 눈이 설새 없이 내리는 내 시빌을 뒤로 하고 나는 다음 목적지인 Chapel Hill로 향하여 떠났다. 체펠 힐에는 주립 노오드 캐롤라이나 대학이 있다. 내시빌 비행장에서 그 동안 사귀었던 중국 학생과 착별의 악수를 하고 「피이드 몬드」 에어라인이란 국내선인 조그마한 비행기를 탔다. 이 비행기는 코오치라고 하는 것인데 버스처럼 조금 가다가 내려서 손님을 태우고 또 조금 가다가는 손님을 태우는 말하자면 우리나라 시의 버스 같은 것이다. 이런 완행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여러 시간 걸려서 겨우 Chapel Hill에 도착할 수 있었다. 리무진을 타도 대학이 있는 곳까지는 상당한 거리였다. 리무진이라는 것은 우리 나라 마이크로 버스 같은 것인데 이것은 비행장에서 시내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이며 미국의 모든 비행장에 다 있는 합승 자동차이다. 처음으로 미국에 도착한 사람은 잘 몰라서 시내까지 택시를 타게 되는데 그 차비가 무려 10불 내외가 된다. 그러나 리무진을 타면 2불 정도이면 충분하다.

외국 여행을 처음 하는 분을 위하여 참고로 알려 드린다.

노오드 캐롤라이나 주는 미국에서도 남부에 속하는 곳이기 때문에 3월 초인데도 산하(山河)가 온통 파랗게 물들어 우리 나라 5월의 풍경과 흡사하다. 미국에 도착한 이래 즐곳 눈과 바람 그라고 추위 속에서 살다가 이 곳에 와서 겨우 회춘(回春)의 기쁨을 맛보게 되니 마음이 한결 평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곳에도 높은 산 같은 것은 없으나 나즈막한 언덕에 나무가 우거지고 미국의 남부는 공업이 거의 없고 농업이 주된 산업이기 때문에 한 없이 전개되는 농촌 풍경이 불만하다. 지정된 Carolina Hotel에 도착했으나 아무런 연락도 프로그램에 대한 지시도 없다. 이런 일은 미국에 온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그 후에 안 일이지만 미국의 남부는 북부와 달라서 사람들이 모두 슬로우 모션이고 농업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회 특유의 맥카니즘의 영향이 적어서 미국 최고는 좀

답답할 때가 있다. 그 대신 사람들이 친절하고 인정스러운 점에서는 북부 사람과 비교가 되지 않을만큼 사람의 마음을 호뜻하게 해 준다. 저녁을 먹고 호텔로 돌아 와 보니, 노오드 캐롤라이나 대학에 유학하고 있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나를 위해 저녁을 마련하였으니 스투던트 센터로 오라는 메시지가 와 있다. 지정된 시간에는 늦었으나 가 보니 10여명의 우리 유학생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유학생들의 처지로서 이런 규모의 파티를 마련한다는 것은 보통 성의를 가지고는 어렵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나로서 진심으로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미국의 남부 사람들이 인심이 좋다는 것은 이미 말했거니와 우리 유학생들도 남부에 와 있는 사람은 인심이 좋아지는 모양이다. 사실 만리미국에서 동포를 만난다는 것도 큰 기쁨이지만 또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저녁을 같이 하면서 고국의 이야기를 주고 받는 것도 크다면 즐거움이 아닐 수 없다. 다음 날 찾아간 노오드 캐롤라이나 대학의 도서관 학교도 다른 여러 대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학 중앙도서관의 윗층에 자리 잡고 있다. 특별히 다른 도서관 학교에 비해서 특색이 있는 것은 아니나 학교가 꽤 평화스러워 보였다. 학생들도 다정스럽고 교수들도 평화 무우드에 젖어 있는 것 같이 보였다. 노오드 캐롤라이나 대학의 도서관 학교에는 우리 나라 학생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 약간 섭섭했다. 대체로 미국의 남부에 있는 대학에 유학하고 있는 우리 나라 학생수는 북부의 그것에 비할 수 없을만큼 적다. 기후가 좋고 인심이 후한 남부에는 왜 한국 학생이 적을까? 그것은 남부는 농업을 배경으로 사는 곳이기 때문에 알바이트를 할 직장이 적어서 그렇다. 북부에는 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공장이나 그것과 관계되는 많은 일 자리가 있으나 남부 지방은 그렇지 못하다. 물론 노오드 캐롤라이나 주립 대학에도 많은 한국 학생이 있기는 하나 아무래도 북부지방을 따를 수는 없다. 도서관 학교에 가서 여러 교수들과 만났으나 그 중에서도 Gambee 박사와는 그 후 날마다 행동을 같이 하다싶이 했다. 그는 Michigan 대학에 있다가 멀리 Chapel Hill까지 내려 와서 교수를 하고 있다.

Gambee 박사는 연세 대학교에 계시는 이재철 교수와 잘 아는 사이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우스운 이야기를 하였다. Gambee 박사의 집에 저녁 먹으러 갔었다. 산중에 있는 그다지 크지 않는 집이 흡사 무슨 별장 같이 조용하고 아담하다.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그래서 인지 그의 부인 Mrs. Gambee는 성악가로서 활약하고 있었다. 부부 단 둘이서 산중의 별장 같은 집에서 조용히 산새를 벗 삼아 살고 있는 것이 적적하기는 해도 그런대로 선비의 생활다워 보였다. 미국에 와서 보고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미국에는 아이 없는 부부가 상당히 많았고 또 독신 남자나 여자도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많았다. 로버트 케네디 같이 아이가 10 여명 있는 것은 예외고 없거나 하나 아니면 둘 정도가 보통이었다. 잘 사는 나라 사람일수록 아이를 적게 낳고 가난한 나라 사람일수록 다산이라는 것도 이번 여행에서 알게 된 일이다. Gambee 박사와 나는 생선 요리를 하는 음식점에 갔다.

미국에서는 생선 요리가 고급에 속하며 귀한 손님 대접에는 생선 음식점으로 초대한다. 나는 귀한 손님은 아니면서 Gambee 박사 덕택으로 생선 요리집에 갈 수 있었다. 그 음식 값은 두 사람 분이 20불 약 6,000원이 나 되었다. 미국의 음식 값은 무섭게 비싸다. 세계에서 제일 음식 값이 싼 때가 아마도 한국일 것이다.

M.P. 더글러스

나는 미국에 와서 가장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M.P. Douglas 여사였다. 아직 한번도 만난 일은 없어도 그녀와 나의 인연은 10년도 더 된다.

나는 더글러스 선생을 만나기 위해서 Chapel Hill 을 떠나서 노오드 캐롤라이나 주의 수도 Raleigh 로 가고 있다. 더글러스 선생은 현재 Raleigh 교육청의 도서관 담당 장학사이다. Douglas 선생을 이야기 하기 위해서 나는 잠시 나의 과거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을 수 없다. 1953년 그 당시 내가 근무하던 마산여자고등학교는 문교부 연구 지정학교가 되었고 그 연구 주제가 「학교도서관의 조직과 운영」이었다. 저급에 와서는 상식적인 것이 되어 버렸으나 그 당시에는 도서관학이란 상상도 못할 시대였다. 그러한 도서관의 불모 시대에 문교부 연구 지정학교에서 학교도서관 문제를 다루게 된 것은 하나의 경이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었다. 그것은 문교부 당국에서 무슨 뚜렷한 이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당시의 교장이었던 P씨가 그 방면의 선각자였던 것과 문교부 장학관으로 있던 P씨의 뒷바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방의 이름 없는 영어교사였던 내가 그 연구 담당자로 임명되어 1953년부터 1955년 연구 발표회 때까지 나

는 학교도서관 일에 몰두하게끔 강요된 셈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 때는 우리 나라에서는 학교도서관은 고사하고라도 도서관학 자체의 존재도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 하나 연구하고 개척해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에는 그 방면의 참고서적이 있을 리가 없다. 그래서 나는 M.P. Douglas 의 유명한 Teacher-librarian's Handbook(그 때는 이 책이 유명한 줄도 몰랐다)와 Fargo 의 The Library in the School 을 구해서 그것을 탐독하고 나대로 연구해서 도서관학의 존재와 학교도서관에 대한 개념을 얻게 되었다. Fargo 의 The Library in the School 에서는 학교도서관의 개념과 철학을 그리고 Douglas 의 Teacher-librarian's Handbook 에서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적인 기술을 배웠다. 나는 이 두개의 책을 근거로 하여 학교도서관을 조직했고 운영하고 마침내 1955년에 전국적인 학교도서관 연구발표회를 가지게 이르렀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는 교육사상 최초의 일 이었고 아전인수격이 되겠지만 그런대로 성공한 연구 발표회라고 믿는다. 그 후 2년 뒤 1957년에 연세대학교에 한국 최초의 대학과정의 도서관학자가 생기게 되었다. 3년 동안 나는 목사님이 성경을 가지듯이 Teacher-librarian's Handbook 를 늘 들고 다녔다(다행히 나는 영어 교사였기 때문에 그 책을 어느 정도 원문으로 이해할 수가 있었다) 만약 그 책이 없었더라면 나는 아무 것도 못 했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Douglas 선생은 나와 연구 발표회를 도와 주신 은인이었다. 나는 10 여년 동안 Douglas 선생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은인이라는 의식을 언제나 가지고 있었다. 나는 지금 그 은인을 만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Raleigh 를 향해 달리고 있다. 버스 속에서 지난 10 여년 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내 머리 속에서 명멸하고 있었다. 나의 도착을 미리 알고 있었던 그녀는 정거장에 마중 나와 있었다. 처음 보는 더글러스 선생은 70이 넘는 할머니였다. 물론 나는 그녀가 젊었으리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으나 70세가 넘는 할머니인 줄은 미처 몰랐다. 그러나 그녀가 단순히 늙은 할머니가 아니라는 것은 그녀의 얼굴에서 품겨 주는 기쁨으로 짐작할 수가 있다. 오랜 세월을 학구 생활과 정신 생활을 해 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유한 풍채를 가진 분이였다. 모자 옷 구두 핸드백이 모두 같은 진 분홍색으로 되어 있어 아직도 인생에 많은 희망과 의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듯 하다. 나는 미리 서신으로 연락했기 때문에 초면의 서먹 서먹한 것도 없이 곧 친하게 이야기 할 수가 있었다.

그녀는 자기 차로써(70이 넘는 할머니가 운전을 하는 것이다) 나의 숙소로 예약된 Raleigh YMCA 호텔로

데려다 주었다. YMCA 호텔이라는 것은 미국에서는 가장 싼 호텔이며 돈 없는 사람이 가는 곳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어디서 묵고 있느냐 하고 물으면 대개는 YMCA 호텔에 있다는 것을 캠퍼스터워져 숨기게 된다. 과거 우리 나라 어느 국회의원이 미국에 가서 돈을 절약하려고 YMCA 호텔에 있다가 쟁피를 당한 일도 있다. 그러나 Raleigh의 YMCA는 사정이 다르다. 근대적인 시설을 갖춘 당당한 호텔이어서 적어도 Raleigh에서는 제 일급의 Hotel이다. 따라서 Raleigh에 있는 한 YMCA 호텔은 자량이 될지언정 수치는 결코 아니다. Raleigh로 가는 사람을 위해서 참고로 알려 드린다. 나는 Raleigh에 두 주일 체류하면서 Douglas 선생의 지도를 받게 되어 있다. 잘 알려져 있는 일이지만 미국 사회는 바쁘기 한이 없는 곳이며 사람들은 마치 돌아가는 기체의 한 부분처럼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다. 일반 시민 생활도 그런데 Douglas 여사 같이 이름이 있고 행동범위가 넓은 사람의 시간이란 참으로 금보다 더 중요하다. 미국 사람에게서는 차라리 돈을 뺏을지라도 그의 시간을 뺏으면 안 된다. 한국 사람(동양 사람은 대체로 그렇지만)과 미국 사람의 교제 관계에서 이것이 늘 트러블의 원인이 되는 수가 있다. Douglas 여사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노오드 캐롤라이나 주의 수도인 Raleigh시 교육위원회 도서관 담당 장학사로서 Raleigh시에 산재한 많은 학교의 도서관을 보살피는다고 분주하기 짝이 없는 분이다. 그 일 뿐만 아니라 미국 각처에서 열리는 도서관 관계 회의 특히 학교도서관 분야의 워워크 샵, 세미나에 참석해야 하고 또 집필 등에 문자 그대로 눈코 뜰 사이 없는 처지인 것 같이 보였다. 70이 넘는 할머니의 일거리로서는 너무 막중한 것 같다. 그러나 더글러스 선생은 그것을 거의 기계적으로 처리해 나가고 있었다.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미국 사람들의 일에 대한 집념과 그 노력은 경탄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나는 더글러스 선생의 권유에 따라 로오리이 시에 있는 부루우튼 고등학교 도서관에서 2주일 동안 실무를 보게 되었다. 부루우튼 하이스쿨은 노오드 캐롤라이나 주의 수도인 로오리이의 이른바 명문교로서 우리 나라로 말하면 세칭 일류 고등학교이다. 이 학교 졸업생들은 일류 대학인 프린스턴, 하아바아드, 예일 같이 미국의 일류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지상 목표로 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과의 수업도 하고 고등학교 선생들이 알바이트로서 학생을 가르치는 비교육적인? 처사도 해야 한다. 물론 이런 것은 당국에서 금지하는 일이지만 현실이 그러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세상 일이란 다 그런 것이어서 미국 같은 사회에서 이런 비교육적인 현상이 있는 것을 보고 사람은 다 마참가지라는 감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다. 과의 수

업의 폐단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는 약간 안도감 같은 것도 느껴 보았다. 소위 일류병이란 세계 도처에 있는 일이라는 것도 그 후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 보고 알게 되었다. 로오리이 시의 부루우튼 하이스쿨은 사서교사가 세 명이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예외적인 일이고 미국의 모든 고등학교도서관이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 로오리이의 다른 중고등학교나 국민학교에는 사서교사가 없는 곳도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서교사가 여러 개의 학교를 겸무하고 있고 장학사인 더글러스 선생은 그 사서교사의 근무일 정표를 짜는 일도 맡고 있다. 사서교사가 세 명이나 있는 부루우튼 고등학교 도서관도 미국의 모든 학교도서관이 그렇듯이 독립 건물이나 2층 교실을 새 개조해서 도서관으로 쓰고 있다.

우리 나라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같이 거대한 독립 건물을 가진 학교도서관은 미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학교도서관이 크면 클수록 좋은 것이기는 하나 우리나라에서 학교도서관이라면 곧 독립된 큰 건물을 연상하고 있는 일부 경향은 그릇된 생각이다. 우리 나라 학교도서관은 전반적으로 보급되지는 않았지만 몇몇 학교도서관은 세계에서 제일 큰 학교도서관인 것도 아이러니한 일이라 하겠다. 사실 미국의 학교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에 비해서 빈약하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교육계에서도 큰 문제거리로 되어 있다. 도서관 왕국이라는 미국에서 학교도서관을 가지지 못한 학교도 수두룩 하다. 또 있어도 시원치 않는 것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나는 기회 있을 때 마다 학교도서관에 관한 한 한국은 미국에 뒤질 것이 없다고 큰 소리를 치곤 했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사람은 해외에 나가던 애국자가 되는 모양이어서 제 나라 자랑을 하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한 것 같다.

미국에서 어째서 다른 부류의 도서관에 비해서 학교도서관이 빈약한가? 이것을 해명하자면 미국의 도서관사를 이해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도서관의 주류는 공공도서관이다. 말하자면 미국에서는 도서관하면 곧 공공도서관을 뜻하는 경우가 많다. 초기에 공공도서관에서 학교도서관의 구실을 해 온 것이 전통 같이 되어 버려서 지금은 그것이 굳어졌다. 학교 교육이 발달됨에 따라 공공도서관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전통 때문에 여전히 공공도서관에서 학생들에 대한 서비스를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미국의 어지간한 공공도서관에는 거의 예외 없이 Children's Department가 있고 School Library Section이 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에서 관하여 있는 학교에 대하여 주도권을 잡고 있으며 그 전통적인 압력 때문에 학교도서관이 제대로 발전 못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교육자나 도서관인들은 공공도서관 보다 학교도서관 자체에서 학생들에게 서어비스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부루우튼 하이스쿨에 이 주일 있는 동안 특별히 알게 된 것은 없지만 그러나 도서관에서 시청각 자료를 권장하고 시청각 서어비스도 하고 있다는 것과 학생들이 소위 라이브리 에티케트가 철저하다는 것에 감명을 받았다. 도서 대출할 때 조용히 말없이 차례로 줄을 짓고 기다린다거나(대체로 미국 사람들은 줄 짓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 책을 빌려 주면 학생 도서위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잊지 않는다거나 반납할 때도 꼭 잘 보았다거나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깊은 인상을 받았다. 임시로 와 있는 나에게 대해서도 학생들은 서어를 붙인다. 여학생들은 언제나 미소를 짓고 있어 모두 애교가 있었다.

듣자니 이 학교에서는 여학생들에게는 가사 시간에 남자를 보고 미소 짓는 훈련을 시킨다고 한다. 미국 같은 민주주의 나라에서 어찌 보면 여권에 관계되는 일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느 나라 여성들의 그 한결 같은 포오카 페이스 보다는 몇 배나 현명한 처사 같이 보인다. 두 주일 동안의 근무를 마친 다음 나는 더글러스 선생과 같이 로오리이 시내와 번두리에 산재한 여러 학교를 방문했다. 그럴 때 마다 느낀 것은 교장 선생님이 다른 어느 선생보다도 일을 많이 하고 가장 바쁜 사람이라는 점이다. 학생들의 출결석 처리 같은 것은 교장의 소관인 것 같고 교장은 결석한 학생 집에 전화로 문의하느라고 전화 통에 매달려 있었다.

떠나기 전날 밤 나는 더글러스 선생 집에 저녁 초대 를 받아서 교외에 있는 그녀의 집에 갔다. 큰 집은 아니었으나 도서관인답게 잘 정돈되어 있고 가구나 비품이 모두 합리적으로 설계되어 있고 배치도 잘 짜여져 있었다. 어느 시골의 조그만한 공공도서관 같이 보였다. 좁은 자리를 극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도서관 조직과 관리의 원칙이다. 다만 애처롭게 여긴 것은 그녀에게 자식이 없고 남편인 미스터 더글러스는 천식으로 활동 불능 상태여서 종일 집에서 소일하고 있었다.

자고로 또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회적으로 이름이 난 여성들이 대체로 가정적으로 박복하다. 직장에서 눈코 뜰 사이 없이 분주히 일하는 더글러스 선생은 또 집에 가면 가정 생활과 남편 시중을 해야 하고 이렇게 나 같은 손님 접대도 해야 하니(식모 같은 것은 있을 리 없

다) 그 초인적인 정력에 새삼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글러스 여사는 훌륭한 학자일뿐만 아니라 뛰어난 인물 같이 보였다. 같이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극장에 갔다. 그 날은 뉴욕에 산다는 한 박사라는 한국인이 한국 무용을 공연하고 있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한국 고전 무용을 시범하고 또 자기 무용에 대한 해설까지 한다. 미국에서는 이외로 한국에 대한 지식이 희박하여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의 일부인 줄 알고 있다. 적어도 나라는 독립 국가이지만 언어나 문화나 풍속이 중국이나 일본의 것과 동일하거나 그 아무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 한 박사라는 이 무용가는 그런 그릇된 인식을 고쳐 주고자 무전 애를 쓰고 있었다. 그 날 밤의 무용 공연은 그런 의미에서 성공한 것이었고 나는 한 박사의 그 애국심을 높히 평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치가나 군인이 아니지만 먼 외국에 와서 이렇게 자기 나라를 위해 애쓰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에는 쓸모 있는 사람이 많다고 느꼈다. 나는 그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인사도 한 일이 없지만 나라에서 보면 무슨 예술 친선 사절도 아니고 순전히 자의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더욱 고맙게 생각했다.

이 곳 노오드 캐롤라이나는 남쪽이기 때문에 인종 차별이 심한 곳이다. 법적으로는 개선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도 인종문제가 크게 클로소스업 되고 있는 곳이다. 인도의 대사가 이 곳에 와서 식당에 들렀다가 거절을 당해 큰 정치 문제를 일으킨 일도 있다. 내가 있을 때도 쇼오 유니버시티라는 흑인만이 다니는 대학이 있는데 그 흑인 학생들의 대대적인 데모를 목격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데모 대열에는 흑인보다 백인이 더 많다는 사실이다. 인종 차별 철폐를 쫓는 백인들도 흑인과 같이 데모를 버리고 있는 것이다. 길 가에서 구경하는 백인들도 데모하는 백인에 대해야 맹렬한 야유를 던지고 있었다. 미국이란 사회는 참으로 이상한 곳이다. 길게 늘어선 데모 대원들은 아무 말 없이 프레카아드를 들고 묵묵히 걸어 가는데 길 가에서 구경하는 시민들이 더 흥분하고 야유하고 떠들고 있었다. 소리만 들어서는 어느 쪽이 데모하는 것인지 착각할 지경이다. 미국이란 나라는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곳이다. 나는 이제 이곳 스케줄을 마치고 다시 와싱턴 D.C.로 떠나야 한다. 노오드 캐롤라이나의 마지막 밤을 봄비 소리를 들으면서 보냈다.